

6 종합

23대 경희대 노동조합 “건강한 직장 만들 것”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제23대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에 임경열 서울캠 총무관리처 관재팀 계장, 수석부위원장에는 신기준 국제캠 평생교육원 행정실장이 당선됐다. 주요 공약은 임금인상과 직원 복지다. 임 위원장과 신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대학을 보다 건강한 직장’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데 슬로건을 내걸었다.

주요 공약은 임금인상과 직원 복지다. 임금인상 현실화는 물가상승률 및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반영하는 1안,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자동 연계되는 산출기준을 마련하는 2안을 대학과 협상한 뒤 대학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신 수석부위원장은 “16년 정도 등록금이 동결인데, 해마다 학교 재정은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어왔다”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예산은 몰아서 가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로는 유연한 근무 형태와 인사 제도 재구축이 주를 이룬다. 근무 형태로는 방종 단축 근무 확대, 신청 없는 시차 출퇴근 진행 등이다. 인사 제도로는 직원 포상제도 활성화, 직급별 직위제 완성 등이 있다.

임 위원장은 건강한 근무 형태를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직원 개인이 건강해야 한다. 건강을 원동력으로 삼아 직장에서도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처우가 약해 그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임 위원장은 현재 우리학교 노동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학 간 소통의 어려움을 꼽았다. 임 위원장은 “계속되는 거버넌스 개편으로 업무가 많아 소통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신 수석부위원장은 저평가 직원에 대한 학교 측 대응에 아쉬움을 표했다. 신 수석부위원장은 “인사처에서 22대 노동조합 임기 중 저평가 직원에 대한 승급 누락제를 부활시켰다”며 “어떤 제도가 있기에 앞서 평가 기준과 방법이 명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 스스로 해당 기준을 명확하게 안 뒤, 목표 의식이 생기게끔 했어야 했다”며 “반대로 고 성과제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격려가 이뤄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노동환경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직원 부족 문제를 꼽았다. 신 수석부위원장은 “명예퇴직 등으로 직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학교에선 감소분을 100% 신규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문제 때문에 숙련됐던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대체하다 보니 격차가 점점 커진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무전공 학생이 입학하고 대외적으로 유학생도 늘어나는 추세지만 학생을 지원할 직원이 부족한 문제도 크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건강한 직장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개인이 건강해야 학교도 건강하고 가정도 더불어 건강해진다”며 “그러기 위해선 대학과의 소통이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설로 생대 과수원이 피해를 입어 수업 및 연구에 차질을 빚게 된다.

(사진=김규연 기자)

폭설로 무너진 생대 과수원 그물망 수업 · 연구 차질 예상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국제】 폭설로 무너진 생명과학대학(생대) 과수원 복구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당장 올해 1학기 수업 운영 및 연구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학교 측은 복구 지원을 논의 중이다.

생대 과수원은 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그물망이 무너져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생대 과수원은 약 400여 평으로, 사과 수종이 식재된 실험 포장이다. 과수원에서 재배한 사과는 대학원 연구와 학부 전공 수업에 사용한다.

복구 작업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복구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사과는 식재 후

3~4년 이후에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대 농장장 엄석현(스마트팜과학) 교수는 “기존 교과 수업과 더불어 앞으로 개설할 노지 스마트팜(과수스마트팜) 관련 과목을 위해 신속한 복구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수원을 사용하는 과목은 전공 필수 ‘식물환경조절학’, 전공선택 ‘기능성식물학 및 실험’과 ‘식물번식학’이다. 해당 과목에선 직접 생대 과수원을 방문해 사과를 관찰한 뒤 실험을 진행한다. 하지만 수업 내용 중 사과의 익은 정도에 따른 차이에 대한 실험 수업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과수원이 완전히 복구되기 전까지는 실험 수업에 변화가 생기게 될 전망이다. 엄 교수는 “시장엔 덜 익은 사과가 나오지 않는다. 익은 사과를 구매해 실

험의 성격을 바꾼 뒤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후 변화 대응 사과 착색 연구에도 차질이 생겼다. 엄 교수는 대책으로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한 사과 샘플을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시간, 비용적 측면에서 불편함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연구생에게도 곤란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김창규(그린바이오과학원 박사과정) 씨는 “박사과정 연구 주제로 사과를 선택했는데 난감한 상황”이라며 연구를 위해 경상북도 군위의 사과연구소를 오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수원 복구와 관련해 학부부총장실은 조속한 복구를 위한 예산 및 방식을 총무관리처, 생대 행정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GS리테일 공동교과 신설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서울】 우리학교가 GS리테일의 산학협력으로 공동교과를 신설해 올해부터 운영한다. 우수 수강생은 추후 GS리테일 채용 지원 시 혜택을 받게 된다. 산학협력 공동교과는 우리학교와 기업이 교육·연구 활동에서 제휴를 맺어 기술 교육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신설되는 교과목이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삼양식품과 산학협력을 맺어 ‘삼양식품

글로벌 전문가 과정(영업&마케팅)’ 과목을 신설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산학협력 공동교과는 ‘GS리테일 MD 전문가 과정’으로 MD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신설됐다. MD는 ‘Merchandise(판매자)’의 약자로, 상품 기획 및 판매를 위한 작업에 관여하는 직무다.

강의는 2025년 1학기 취·창업 교과로 개설된다. 강의 대상은 4학년이고, 정원은 35명이다. 자문교수 추천, 개별 수강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강생은 현직 멘토를

통해 MD 직무 전반을 이해할 수 있다. 자문교수는 김태희(Hospitality 경영학) 교수가 맡는다.

수강생은 현직자가 부여하는 카테고리별 실무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GS리테일 현직자가 멘토 강사로 참여한다. 주요 강의 내용은 MD 직무 이해, 시장·고객 조사 및 상품 런칭, 아이디어 제안 등이다. 개인 우수자 상위 30% 수강자에게는 GS리테일 채용 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 ▲AI역량 및 인적성 검사 면제의 혜택을 받는다.



23대 경희대 노동조합 임원으로 임경열 위원장(왼쪽)과 신기준 수석부위원장(오른쪽)이 당선됐다. (사진=하시언 기자)